

산학공동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姜孝信·權寧奎·朴宰賢·徐富一*·李政祐**

ABSTRACT

A Study of Exploration for the Educational-Industrial Joint Research Projects on Oriental Medicine

Hyo-Shin Kang, O.M.D., Ph.D., Young-Kyu Kwon, O.M.D., Ph.D., Jae-Hyun Park, O.M.D., Ph.D., Bu-II Seo, Ph.D.,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San University, Jeong-Ho Lee, Kyung-San University Tae Gu Oriental Hospital.

I. PURPOSE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The presentation of research direction for compositive study and application of oriental medicine is urgently demanded. Since there is few investigation for the interest in basic and clinical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we hope that compositive study and concentrative research between instruction in college and local clinics is established by this research.

II. RESEARCH CONTENT

- Analysis of survey in basic field of oriental medicine as instruction curriculum.
- Analysis of survey in clinical field of oriental medicine as the classification of disease.

* 慶山大學校 韓醫學科

** 慶山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 본 논문은 1995년도 경상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한 논문임.

III. RESUL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most interested field i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clinical field and diagnostics in basic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al clinic doctors are concerned about prescription and a newly-developed techniques such as new acupuncture therapy, new machines. They hope that a study of oriental medicine in clinical field be accomplished with the special clinics as leader.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ults, we can work out the foundation of compositive study and concentrative research between instruction in college and local clinics, and on this ground it is considered that we can grope for the presentation of research direction of local clinics.

I. 서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의 최대과제는 환경과 건강을 비롯한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문제로 집약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보전은 공공복지기술의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유례없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산업기술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최근 한의계의 상황은 정책적 소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차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내 연구지원사업에서도 한의학분야가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국내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기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로 보건의료분야가 손꼽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내의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선진국에 의한 국내 임상의학계의 상당부분이 침식됨으로써 국민보건복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됨에 따라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에 대한 기반연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

특히 한의학은 우리 전통의학인 동시에 선진국에서 새로운 대체의학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므로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의학의 잠재된 가능성은 충분하며 무엇보다 질병예방 방면의 우수성, 한약으로부터의 신약개발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하고 1995년부터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사업의 의과학분야에 한의학의 기초이론 및 치료법의 객관화연구가 기초응용 및 기반기술분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로 한의학이론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 진단 및 치료기술에 대한 동서의학적 연구, 침구 등 특수 치료법의 임상응용 및 현대화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¹⁾.

한편 서양의학에서는 이미 89년에 기초의학분야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하여 이를 기초로 의과학분야의 연구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보고에 따르면 서양의학의 기초의학분야는 질병의 원인규명에 치중하고, 임상의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의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파악되었으며 향후 생명과학분야와의 공동연구, 질병의 예방에 관한 연구, 질병예방 전문인력의 확보, 역학적 기초조사연구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²⁾.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료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국내 의료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고, 인간 건강의 본질을 규명하고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수단을 개발하며, 인류가 직면한 난치병 또는 불치병을 정복하기 위한 의학 관련기술분야에서 한의학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활용으로 복지국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의학 분야의 기초 및 임상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조사하여 한의학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개원가와 공동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개원가와 더불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는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위치한 대구시 지역의 대학, 한방병원 및 개원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학의 기초의학 분야와 임상의학 분야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를 조사하기 위하여 95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자기 기입식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기초의학 분야는 기초 교과목별로 연구관심분야를 조사하였고, 임상의학 분야는 임상各科의 질환별 연구관심 분야와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연구희망 분야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질문에 응답하여 설문지가 회수된 128명의 설문 답변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연구관심 분야 조사 자료로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설문응답 한의사의 현황 조사

(1) 설문응답 한의사의 일반적 특성

대구광역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한의사중에서 설문응답한 한의사는 총 128명이었으며,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면, 우선 연령 분포의 경우 20대 한의사가 24.2%, 30-34세 한의사가 42.2%, 35-39세 한의사가 14.8%, 40-44세 한의사가 12.5%, 45-49세 한의사가 0.8%, 60세 이상 한의사가 5.5%로 나타났으며, 30-34세 한의사가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임상경력은 1년 미만의 한의사가 4.7%,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의사가 40.6%, 5년 이상 10년 미만의 한의사가 36%,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한의사가 12.5%,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한의사가 0.8%, 30년 이상 한의사가 4.7%, 무응답 한의사가 0.8%였는데,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의사가 40.6%로 가장 많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로 설문에 많이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한의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의원이 7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병원이 14.1%, 한방병원이 7.0%, 무응답이 3.1%를 차지하고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의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주택가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업지역 34.4%, 공업지역이 4.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시복합지역, 농업지역, 주상복합지역이 각각 0.8%로 극소수를 차지하였으며, 무응답이 3.1%였다(표 1).

표 1. 설문 응답 한의사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세)		
20대	31	24.2
30-34세	54	42.2
35-39세	19	14.8
40-44세	16	12.5
45-49세	1	0.8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7	5.5
임상경력		
1년미만	6	4.7
1년이상 5년미만	52	40.6
5년이상 10년미만	46	36.0
10년이상 20년미만	16	12.5
20년이상 30년미만	1	0.8
30년이상	6	4.7
무응답	1	0.8

의료기관		
한의원	97	75.8
한방병원	9	7.0
학교병원	18	14.1
무응답	4	3.1
의료기관의 주변지역		
주택가	68	53.1
상업지역	44	34.4
공업지역	6	4.7
농업지역	1	0.8
농공복합지역	1	0.8
도시복합	1	0.8
주상복합	3	2.3
무응답	4	3.1
합계	128	100.0

2. 관심분야에 관한 총괄적인 질문 분석

내용으로는 첫째,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분야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둘째, 임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분야 그리고 셋째로 양의학에 비해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임상 치료 영역에서 치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분야 및 진단분야에서 연구 활용되기 희망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 및 임상의학 연구분야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기초의학의 연구분야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245회의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진단학분야로 31%를 차지하였으며, 방제학분야가 16.7%, 韓醫學의 양의학적 접근분야가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본초학분야 및 기초이론분야가 각각 11.4%, 양생관련분야가 5.7%, 한의학관련 제도분야가 4.5%, 원전외사학분야가 3.7%를 차지하였다.

임상의학 연구분야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245회의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침구과분야 26.1%와 내과분야 24.9%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인과분야 13.5%와 사상의학분야 13.1%였다. 이 외에 소수 관심분야로 신경정신과분야 9.0%, 물리요법과분야 5.3%, 피부·외과분야 3.7%, 소아과분야 2.4%, 안이비인후과 2.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

표 2-1.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주요 관심분야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기초의학 분야	245건	진단학분야	76건(31%)
		방제학분야	41건(16.7%)
		양의학적 접근 분야	38건(15.5%)
임상의학 분야	245건	침구학분야	64건(26.1%)
		내과분야	61건(24.9%)
		부인과분야	33건(13.5%)

(2) 임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에 관한 조사

1) 내과질환 분야

한 의사가 내과분야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소화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회수 총 200회 중에서 57%를 차지하여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많은 질환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질환명으로는 위염이 39회(19.5%)를 차지하여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환기계 질환이 1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中風이 15회(7.5%)를 차지하여 순환기계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진대사장애 질환은 8.5%를 차지하였으며 이 분야 중에서는 虛勞 및 피로관련 내원환자가 11회(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흡기계 질환은 8%를 차지하였으며, 이 질환분야 중에서는 感冒가 8회(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담계 질환은 8%를 차지하였으며, 이 질환분야 중에서는 간염이 7회(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

경정신계 질환 5.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질환 분야 중에서는 두통이 8회(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2).

2) 부인과질환 분야

한 의사가 부인과분야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월경관련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회수 총 180회 중에서 35%를 차지하여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많은 질환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질환명으로는 월경불순이 35회(19.4%), 생리통이 19회(10.6%)를 차지하여 월경관련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신관련 질환은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질환분야 중에서는 불임이 26회(14.4%)를 차지하여 임신관련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후관련 질환 분야는 17.8%를 차지하였는데, 이 분야 질환 중에서 산후통이 16회(8.9%), 산후병이 11회(6.1%)로 산후관련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잡병분야 질환은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분야 질환 중에서 갱년기질환이 9회(5%)로 잡병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하관련 질환은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뇨생식기관련 질환은 6.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뇨생식기 관련 질환 중에서는 자궁염이 5회(2.8%)로 이 분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3) 소아과 질환

한 의사가 소아과분야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소화기계 질환, 신경정신계 질환, 폐계관련 질환 등 3개 분야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회수 총 198회 중에서 78.8%를 차지하여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소아과 질환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화기계 관련질환이

31.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소화기계 관련질환 중에서 식체가 27회(13.6%), 식욕부진이 10회(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계관련 질환은 29.3%를 차지하였는데, 이 분야 질환 중에서는 감기가 46회(23.2%)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경정신계 질환은 18.2%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가 34회(17.2%)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질환 중에서는 경풍이 15회(7.6%), 허약 및 발육부전이 12회(6.1%)로 한방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4) 신경정신과 질환

한 의사가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총 172회의 응답 중에서 불면이 43회(25%)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두통이 31회(18.0%), 신경증이 22회(12.8%), 심계가 14회(8.1%), 우울증이 8회(4.7%), 울병과 신경쇠약이 각각 7회(4.1%)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5) 운동기계 질환

한 의사가 운동기계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총 213회의 응답 중에서 요통 및 염좌요통이 76회(35.7%)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견비통이 26회(12.2%), 염좌가 25회(11.7%), 관절통이 13회(6.1%), 요각통이 11회(5.2%)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기계 질환을 부위별로 다시 총괄하여 본다면, 총 213회의 응답 중에서 요부위가 78회(36.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견비·갑갑부가 28회(13.1%), 족부가 25회(11.7%), 슬부가 23회(10.8%), 요각부가 11회(5.2%), 경항부가 3회(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질환 분야별로 총괄하여 본다면, 동통관련 질환이 161회(75.6%)를 차지하고 있어 운동기계 질환에서 거의 대부분의 질환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2).

6) 안이비인후과 질환

한 의사가 안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총 165회의 응답 중에서 비염이 50회(30.3%)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축농증이 33회(20%), 이명이 15회(9.1%), 편도선염 및 알러지성 비염이 10회(6.1%), 口眼喎斜가 6회(3.6%)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이비인후과 질환을 부위별로 다시 총괄하여 본다면, 총 165회의 응답 중에서 비질환이 5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후질환이 15.8%, 耳疾患이 12.7%, 안질환이 10.9%, 안면질환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7) 피부, 외과 질환

한 의사가 피부, 외과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총 128회의 응답 중에서 癩疹이 31회(24.2%)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이 17회(13.3%), 염좌가 15회(11.7%), 여드름과 소양증이 각각 10회(7.8%)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8) 물리요법과 질환

한 의사가 물리요법과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총 91회의 응답 중에서 요통이 23회(25.3%)로 물리요법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中風과 비만이 각각 6회(6.6%), 좌골신경통이 5회(5.5%)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환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척추질환(요통포함)이 32회(35.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통관련 질환(요통포함)이 47회(51.6%)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9) 사상의학과 질환

한 의사가 사상의학과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총 46회의 응답 중에서 少陰人과 太陰人 질환이 각각 15.2%로 사상의학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少陽人 질환이 8.7%였다.

그 외에 사상의학으로 환자를 많이 경험한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5회(1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혈압이 4회(8.7%), 체질개선이 3회(6.5%)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표 2-2. 임상영역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내과질환	200건	소화기계질환	114건(57%)
		순환기계질환	26건(13%)
		신진대사질환	17건(8.5%)
부인과질환	180건	월경관련질환	63건(35%)
		임신관련질환	33건(18.3%)
		산후관련질환	32건(17.8%)
소아과질환	198건	소화기계질환	62건(31.3%)
		호흡기계질환	58건(29.3%)
		신경정신질환	36건(18.2%)
신경정신과질환	172건	불면	43건(25%)
		두통	31건(18%)
		신경증	22건(12.8%)
운동기계질환	213건	요부질환	78건(36.6%)
		견갑부질환	28건(13.1%)
		족부질환	25건(11.7%)
안이비인후과질환	165건	鼻질환	93건(56.4%)
		咽喉질환	26건(15.8%)
		耳질환	21건(12.7%)
피부외과질환	128건	癩疹	31건(24.1%)
		알러지성질환	17건(13.3%)
		염좌	15건(11.7%)

물리요법과질환	91건	요통 중풍후유증 비만	23건(25.3%) 6건(6.6%) 6건(6.6%)
사상의학과질환	46건	소음인질환 태음인질환	7건(15.2%) 7건(15.2%)

(3) 임상의학의 총괄적 질문 중 그 밖의 질문에 대한 조사

1) 양의학에 비해 더욱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한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특히 양의학에 비해 더욱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회수 총 266회 중에서 침구과 분야가 29.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상의학 분야가 15.4%, 신경정신과 분야 15%, 내과 분야가 14.6%, 부인과 분야가 11.3%였다. 이 외에 소수 관심분야로 소아과 5.3%, 피부·외과분야 3.4%, 안이비인후과 3.0%, 물리요법과 2.6%로 조사되었다(표 2-3).

2) 치료수단에 있어 더욱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

임상의학 연구분야 중 치료수단에 있어 앞으로 더욱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150회의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침요법 40%, 약물요법 33.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물리요법 8%, 구요법 6.7%, 약침요법 4%, 추나요법이 3.4%로 조사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정신요법, 심리치료, 부항요법, 비약물요법 등도 소수 관심분야로 조사되었다(표 2-3).

3) 진단분야에 있어 앞으로 연구, 활용화 되기를 희망하는 분야

임상의학의 연구분야 중 진단분야에 있어 연구, 활용화 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137회의 응답 중에서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진단이 전체의 65%로 가장 희망하는 진단방법이었으며, 현대기기를 활용한 진단이 32.8%, 그 외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현대기기 활용 진단, 기공이나 초능력을 통한 진단, 현대병명으로 진단된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의 활용도는 각각 0.73%로 소수의 관심을 나타내었다(표 2-3).

표 2-3. 임상의학의 연구분야 중 그 밖의 질문에 대한 조사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양의학 보다 우수성이 인정 되는 분야	266건	침구과 분야	78건(29.3%)
		신경정신과 분야	40건(15.0%)
		내과분야	39건(14.6%)
치료법 중 제일 관심을 두는 분야	150건	침요법	60건(40%)
		약물요법	50건(33.4%)
		물리요법	12건(8%)
진단분야에서 연구활용을 원하는 분야	137건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진단	89건(66%)
		현대기기를 활용한 진단	45건(32.8%)

3. 앞으로 연구되기 희망하는 세부 분야에 대한 질문 분석

내용으로는 첫째, 기초의학 분야의 세부 관심 분야와 둘째는 임상분야 중 앞으로 중점적인 연구를 희망하는 분야이며, 셋째는 치료방법 중 중점적으로 연구 희망하는 분야, 넷째는 진단 분야에서 앞으로 연구 희망하는 분야이며,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임상영역의 연구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의학 분야의 관심 있는 세부 분야

1) 원전외사학분야

원전외사학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 총 145회의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는 침구관련 서적 31.7%, 내경 및 난경에 관한 연구 22.8%, 본초관련 서적 20%, 상한 및 금궤에 관한 서적 17.9%의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 의사학 3.4%,

동의수세보원 1.4%, 외과학관련 서적, 사상, 동의보감 및 추나관련 서적이 각각 0.7%의 연구 관심분야로 조사되었다(표 3-1).

2) 기초이론분야

기초이론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 총 138회의 응답 중에서 경락 및 경혈에 관한 연구가 41.3%, 각종 변증에 관한 연구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양오행, 운기학설 13.8%, 주역 4.3% 와 기타 한방이론의 검증, 동의수세보원, 내경, 추나관련, 사상의학에 관한 연구는 각각 0.7%의 관심을 나타내었다(표 3-1).

3) 진단학분야

진단학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 결과는 총 130회의 응답 중에서 四診에 관한 연구가 44.6%, 체질진단 39.2%로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醫案 14.6%, 四柱推命學 및 병명의 객관화 및 통일성에 관한 연구는 0.8%로 소수의 관심을 나타내었다(표 3-1).

4) 한의학관련제도 연구분야

한의학관련제도 연구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는 총 139회의 응답 중에서 한약의 유통 규격화에 관한 연구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 35.3%, 의료보험법 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의 분과, 교과과정, 한의학보존법 등이 소수의견으로 조사되었다(표 3-1).

5) 본초학분야

본초학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는 총 135회의 응답중에서 제형의 개발 33.3%, 한약의 약리학적 접근 25.9%, 한약의 검증 20.7%, 한약의 포제 11.9%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한약의 재배, 한약의 관리, 유기농법재배에 관한 의견이 각각

0.7%로 조사되었다(표 3-1).

6) 양생관련 연구분야

양생관련 연구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 총 129회의 응답 중에서 식양 및 식료에 관한 연구가 48.8%, 기공 44.9%로 가장 높은 관심이 나타났으며 기타 운동, 의식주 생활, 예방, 섭생, 수면, 도로 병을 고침, 영양 등에 관한 연구가 소수의견으로 조사되었다(표 3-1).

7) 방제학분야

방제학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는 총 139회의 응답 중에서 후세방 48.2%, 상한방 28%, 민간방 15.8%, 사상방 7.2%, 외용약 0.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

8) 한의학이론의 양의학적 접근분야

한의학이론의 양의학적 접근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 총 138회의 응답 중에서 병리관련 연구 분야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역학관련 연구가 29.7%, 약리관련 연구 22%, 생리관련 연구 11.6%, 해부·조직관련 연구 5.1%, 진단관련 연구 0.7%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표 3-1).

표 3-1. 기초의학 분야의 세부 관심 분야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원전의학	145건	침구 관련서적	46건(31.7%)
		내경 및 난경	33건(22.7%)
		상한 및 금궤	26건(17.9%)
기초이론	138건	경락 및 경혈론	57건(41.3%)
		각종 변증론	51건(37%)
		음양오행, 운기학설	19건(13.8%)
진단학	130건	사진법	58건(44.6%)
		체질진단	51건(39.2%)

한의학 관련제도	139건	한약의 유통규격화 의료법과 약사법	66건(47.6%) 49건(35.3%)
본초학	135건	제형의 개발 한약의 약리학적 접근 한약의 검증	45건(33.3%) 35건(25.9%) 28건(20.7%)
양생관련 연구분야	129건	食養, 食療 기공법	63건(48.8%) 58건(44.9%)
방제학 분야	139건	후세방 상한방 민간방	67건(48.2%) 39건(28%) 22건(15.8%)
한의학이론의 양의학적 접근분야	138건	병리 관련분야 면역학 관련분야	51건(37.1%) 41건(29.7%)

(2) 임상영역별 분야중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

1) 내과 질환

내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214회의 응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22.4%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분야였으며, 심혈관계 질환과 간담계 질환이 각각 2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연구 희망 분야로는 신진대사 질환이 17.3%, 호흡기계 질환이 6.1%, 비뇨생식기 질환이 3.3%, 신경정신질환이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개별 질환을 살펴 보면, 당뇨병관련 연구가 28회(13.1%)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암관련 연구가 27회(12.6%)였는데 암 중에서도 위암 및 소화기암이 7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中風과 간염이 각각 15회(7.0%), 고혈압이 13회(6.1%), 간경화가 9회(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2) 부인과 질환

부인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196회의 응

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임신관련 질환이 74회(37.8%)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분야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뇨생식기 질환이 33회(16.8%), 월경관련 질환이 30회(15.3%), 雜病이 13.3%, 산후관련 질환이 7.7%, 대하관련 질환이 5.6%, 신경성 질환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개별 질환을 살펴 보면, 불임이 58회(29.6%)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경이상 15회(7.7%), 산후풍이 12회(6.1%), 갱년기증후군이 11회(5.6%), 대하가 10회(5.1%), 子宮筋腫과 子宮癌이 각각 8회(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3) 소아과 질환

소아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보면, 驚風이 23회(14.1%)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질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허약, 발육부진 및 개선에 관련된 연구를 희망한 경우가 18회(11.0%), 感冒가 12회(7.4%), 간질이 9회(5.5%), 천식이 7회(4.3%), 뇌성마비가 6회(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4) 신경정신과 질환

신경정신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보면, 두통과 불면이 41회(24.7%)로 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경증이 32회(19.3%), 정신병 23회(13.9%), 간질이 11.4%, 頭痛이 9.6%, 치매가 7.2%, 우울증이 6.0%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5) 침구과 질환

침구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보면, 요통 및 요각통이 51회(29%), 관절질환이 44회(25%), 견비통이 18회(10.2%)로 침구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口眼喎斜가 9회(5.1%),

오십견이 7회(4.0%), 針灸마취가 5회(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통에 관련된 질환에 관한 연구를 희망한 응답은 총 80회로 전체 응답 중에서 45.5%를 차지하였으며, 퇴행성질환이 8회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6) 안이비인후과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174회의 응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鼻疾患이 42.5%, 眼疾患이 29.3%로 이 두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분야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耳疾患이

16.0%, 咽喉疾患이 4.6%, 顔面疾患이 3.4%, 口舌疾患이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개별 질환을 살펴 보면, 총 174회의 응답 중에서 비염관련 연구를 희망하는 경우가 42회(24.1%), 축농증관련 연구를 희망하는 경우가 30회(17.2%)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명증이 23회(13.2%), 사시와 백내장이 각각 10회(5.7%), 중이염이 8회(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7) 피부, 외과 질환

피부, 외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보면, 알러지성피부관련 질환이 27회(18.4%)를 차지하여 피부, 외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하였는데, 피부염 중에서도 알러지성 피부염이 13회(8.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건선이 20회(13.6%), 습진이 11회(7.5%), 癬疹이 10회(6.8%), 面疱瘡이 9회(6.1%), 치질이 7회(4.8%), 대상포진 및 탈모증이 각각 6회(4.1%), 무좀 및 骨折 관련 분야가 5회(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8) 물리요법과 질환

물리요법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

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107회의 응답을 얻었는데, 관절관련 질환이 17회(15.8%), 中風관련 질환이 14회(13.1%), 요통이 16회(14.9%)를 차지하여 물리요법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만이 9회(8.4%), 단식이 8회(7.5%), 오십견이 7회(6.5%), 견비통이 6회(5.6%), 推拿요법질환이 5회(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9) 사상의학과질환

사상의학과 질환분야 중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62회의 응답을 얻었는데, 체질감별이나 診斷에 관련된 연구를 희망하는 경우가 10회(16.1%)로 사상의학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中風이 5회(8.1%), 고혈압 및 비만이 각각 4회(6.5%), 체질개선이 3회(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표 3-2. 임상영역별 분야 중 중점 연구를 희망하는 분야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내과질환	214	소화기계질환	48건(22.4%)
		순환기계질환	43건(20.1%)
		간담계질환	43건(20.1%)
부인과질환	196	임신관련질환	74건(37.8%)
		비노생식기질환	33건(16.8%)
		월경관련질환	30건(15.3%)
소아과질환	163	驚風	23건(14.1%)
		발육부진 및 개선	18건(11%)
		감모	12건(7.4%)
		간질	9건(5.5%)
신경정신과질환	166	두통, 불면	41건(24.7%)
		신경증	32건(19.3%)
		정신병	23건(13.9%)
운동기계질환	176	요각통	51건(29%)
		관절질환	34건(19.3%)
		견비통	18건(10.2%)

안이비인후과질환	174	비질환 안질환 이질환	74건(42.5%) 51건(29.3%) 31건(17.8%)
피부외과질환	147	알려지성피부질환 건선 습진 은진	27건(18.4%) 20건(13.6%) 11건(7.5%) 10건(6.8%)
물리요법과질환	107	관절질환 중풍후유증 요통	15건(14%) 14건(13.1%) 12건(11.2%)
사상의학과질환	62	체질감별 및 진단 중풍	10건(16.1%) 5건(8.1%)

표 3-3. 치료방법 중 중점적으로 연구되기 희망하는 분야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약물요법	144건	후세방	51건(35.4%)
		체질방	43건(29.9%)
		고방	23건(16%)
침요법	152건	약침요법	48건(31.6%)
		일반침요법	43건(28.3%)
		오행침법	24건(15.8%)
물리요법	147건	추나요법	54건(36.7%)
		기공요법	34건(23.1%)

(3) 치료방법 중 중점적으로 연구되기 희망하는 분야

1) 약물요법

약물요법 중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 총 144회의 응답 중에서 후세방에 관한 연구가 35.4%, 체질방이 29.9%의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古方 16%, 外用方 12.5%, 民間方 4.9%, 長壽藥 0.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3).

2) 침요법

침요법 중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는 총 152회의 응답 중에서 약침요법이 31.6%로 가장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침요법 28.3%, 오행침법이 15.8%, 레이즈침요법 7.2%, 전침요법 5.9%, 이침 및 태극침 요법이 각각 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두침, 기공침, 팔체질침, 권도원체질침, 피내침, 인영촌구침, 체질침 등의 소수 의견이 조사 되었다(표 3-3).

3) 물리요법

물리요법 중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결과는 총 147회의 응답 중에서 추나요법 36.7%, 기공요법 23.1%, 자연요법 25%, 부항요법 10.9%, 전기요법 9.5%, 광선요법 2.7%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표 3-3).

(4) 진단분야에서 연구 희망하는 분야

1) 현대기기를 이용한 진단분야

현대기기를 이용한 진단분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 결과는 총 159회의 응답 중에서 초음파진단기에 관한 연구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체열진단기 18.9%, 혈액분석기 18.2%, 뇌혈류측정기 12.6%, X-ray 10.1%, CT 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맥진기, MRI 등의 소수 의견이 조사 되었다(표 3-4).

2) 한방원리를 이용한 기기 진단분야

한방원리를 이용한 기기 진단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 결과는 총 122회의 응답 중에서 맥진기에 관한 연구가 60.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경락진단기 23%, 양도락 14.8%, 체질진단기 0.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4).

표 3-4. 진단분야에서 연구 희망하는 분야

구 분	응답 건수	내 용	빈 도(%)
현대기기를 이용한 진단 분야	159건	초음파 진단기	48건(30.2%)
		체열진단기	30건(18.9%)
		혈액분석기	29건(18.2%)
한방원리를 이용한 기기 진단 분야	122건	맥진기	74건(60.7%)
		경락진단기	28건(23%)

(5) 임상영역의 연구방안

앞으로 임상영역의 연구방안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에 관한 조사결과는 총 126회의 응답 중에서 전문클리닉 표방 중심으로 한 연구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의 역할 중심으로 한 연구가 20.6%, 임상各科 표방 중심의 연구가 11.1%로 나타났으며 기타 한방치료영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이론적 검증에 관한 연구의 의견이 조사되었다(표 3-5).

표 3-5. 임상영역의 연구방향

구 분	빈 도(N)	비 율(%)
임상各科 표방 중심으로	14건	11.1
전문클리닉 표방 중심으로	85건	67.4
일반의 역할 중심으로	26건	20.6
한방치료영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이론적 검증	1건	0.8
합 계	126건	100

IV. 고 찰

본 연구는 한의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연구 방향을 도출하여, 현실성 있는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임상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한의학의 기초의학 분야와 임상의학 분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관심있는 주요 분야를 한의과대학인 교육기관과 지역 개원가와 함께 공동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아울러 개원가와 더불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 분야의 산학공동연구와 같이 학교와 개원가가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측면에서의 산학공동연구는 바로 교육기관과 임상의학과의 공동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한의계에서는 교육기관과 개원 임상의학과의 공동연구가 미흡하였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구시 거주 지역의 대학, 한방병원 및 개원 한의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의학 분야와 임상의학 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자기 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 분야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설문 질의에 있어 주관식에 의한 자기 기입 방식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므로 다양한 내용의 많은 응답으로 인해 분석의 빈도 면에서 다소 산만함이 있어 주요 내용별 최다 응답건수를 중심으로 도표화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그 응답별 사항을 다소 개괄적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총괄적인 질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초의학의 연구분야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진단학분야로 31%를 차지하였으며, 방제학분야가 16.7%, 韓醫學의 양의학적 접근분야가 15.5%로 나타났다(표 2-1). 임상의학 연구분야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침구과분야 26.1%와 내과분야 24.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임상적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진단학 분야와 침구학 분야에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임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질환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내과질환분야 중에서는 소화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위장기계 중심의 질환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순환기계 질환이 13%정도로 조사되었다. 부인과분야 중에서는 월경관련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월경불순, 생리통 등의 월경관련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신관련 질환은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아과분야

중에서는 소화기계 질환, 신경정신계 질환, 폐계관련 질환 등 3개 분야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78.8%를 차지하여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소아과질환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불면이 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두통이 18.0%정도였다. 운동기계 질환 중에서는 요통 및 염좌요통이 35.7%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견비통, 관절통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안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는 비염이 30.3%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이비인후과 질환을 부위별로 본다면, 총 165회의 응답 중에서 비질환이 5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후질환, 耳疾患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피부, 외과 질환 중에서 癩疹이 24.2%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알려지성 피부질환 등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조사되었다. 물리요법과 질환 중에서 요통이 25.3%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中風후유증과 비만으로 조사되었다. 질환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척추질환이 35.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통관련 질환(요통포함)이 51.6%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상의학과 질환 중에서 少陰人과 太陰人 질환이 각각 15.2%로 사상의학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질환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少陽人 질환이 8.7%였다(표 2-2).

그 밖의 총괄적 질문 중에서 한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특히 현대의학에 비해 더욱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침구과 분야가 29.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상의학 분야 15.4%, 신경정신과 분야가 15%로 조사되었다. 임상의학 연구분야 중 치료수단에 있어 더욱 치중해야 생각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침요법이 40%, 약물

요법이 33.4%로 한의사의 대다수가 보편적 치료 방법의 중점적 연구를 통해 임상면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의사 대부분이 침구학 분야의 우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의학의 연구분야 중 진단분야에 있어 연구, 활용화 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진단이 전체의 65%로 가장 희망하는 진단방법이었으며, 현대기기를 활용한 진단이 32.8%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한의진단법의 객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질병 진단의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표 2-3).

앞으로 연구하기를 희망하는 세부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기초의학 분야인 원전의사학분야 중에서는 침구관련 서적이 31.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내경 및 난경에 관한 연구가 22.8%로 조사되었다. 기초이론분야 중에서는 경락 및 경혈에 관한 연구가 41.3%, 각종 변증에 관한 연구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원전을 중심으로한 경락과 경혈의 연구를 통해 침구학 분야의 독특함과 치료 활용면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단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보면, 四診에 관한 연구가 44.6%, 체질진단 39.2%로 가장 관심이 높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질환 진단에 필요한 진단의 객관성과 새로운 진단영역의 욕구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한의학관련제도 연구분야 중에서는 한약의 유통 규격화에 관한 연구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이 35.3%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한의학의 시대적 상황의 연유로 생각되어지며, 본초학분야 중에서 제형의 개발 33.3%, 한약의 약리학적 접근 25.9%로 조사되었다. 양생관련 연구분야 중에서는 식양 및 식료에 관한 연구가 48.8%, 기공 44.9%로 가장 높은 관심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자연치료 개념의 일환으

로 생각 되어진다. 방제학분야 중에서는 후세방이 48.2%로 나타났다. 한의학이론의 양의학적 접근 분야 중에서는 병리관련 연구분야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역학관련 연구가 29.7%로 조사되었다(표 3-1).

임상영역별 분야 중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세부분야를 보면, 내과질환 분야 중에서는 소화기계 질환이 22.4%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분야였으며, 심혈관계 질환과 간담계 질환이 그 다음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개별 질환을 살펴 보면, 당뇨병 연구가 13.1%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암관련 연구가 1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인과질환 분야 중에서는 임신관련 질환이 37.8%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분야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뇨생식기 질환이, 月經관련 질환 등 이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개별 질환을 살펴 보면, 불임이 29.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아과 질환분야 중에서는 驚風이 14.1%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질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허약, 발육부진 및 개선에 관련된 연구를 희망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신경정신과질환 분야 중에서는 두통과 불면이 24.7%로 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침구과질환 분야 중에서는 요통 및 요각통이 29%, 관절질환이 25%로 침구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동통에 관련된 질환에 관한 연구를 희망한 응답은 전체 응답 중에서 45.5%를 차지하였다. 안이비인후과질환 분야 중에서는 鼻疾患이 42.5%, 眼疾患이 29.3%로 이 두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분야였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개별 질환을 살펴 보면, 비염 관련 연구를 희망하는 경우가 24.1%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부, 외과질환 분야 중에서는 알러지성피부관련 질환이 18.4%를 차지하여 피부, 외과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하였는데, 피부염 중에서도 알러지성 피부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건선, 습진, 癬疹 순서로 조사되었다. 물리요법과 질환분야 중에서는 관절 관련질환, 中風후유증 관련질환, 요통, 비만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상의학과 질환분야 중에서는 체질감별이나 診斷에 관련된 연구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연구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다음으로 치료방법별 연구 희망 분야를 보면, 약물요법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가 후세방에 관한 연구와 체질방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침요법 중에는 약침요법이 31.6%로 가장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침요법, 오행침법이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요법 중에는 추나요법 36.7%, 기공요법 23.1%로 조사되었다(표 3-3).

현대기기를 이용한 진단분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보면, 초음파진단기에 관한 연구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체열진단기, 혈액분석기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방원리를 이용한 기기 진단에서는 맥진기에 관한 연구가 60.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경락진단기, 양도락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표 3-4).

앞으로 임상영역의 연구방안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보면, 전문클리닉 중심으로 한 연구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임상영역에서 전문 질환별 중심의 연구와 치료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5).

끝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방 상병명의 분류³⁾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환 표현에 있어 상병분류에 속하지 않은 병명 또는 중복된 개념이나 혹은 양방 병명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명으로 응답하고 있어 내용별 분류에 문제가 다소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한방 상병명 분류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주요 관심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기관인

한 의과 대학과 더불어 개원 임상외과의 공동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 관심분야에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이상에서 지역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주요 연구관심 분야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는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진단학 분야이며,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침구학 분야로 나타났다.
2. 기초의학 연구 세부분야에서, 기초이론분야에는 경락 및 경혈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원전외사학 분야에서도 針灸관련서적과, 내경 및 난경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았다. 진단분야에서는 四診에 관한 연구, 체질진단 등에 관심이 높았으며, 본초학 분야에서는 제형의 개발과 한약의 약리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 높았고, 방제학 부분에서는 후세방과 체질방의 연구에 관심이 높았다. 그 밖의 분야로는 한의학 관련 제도 연구분야로 한약의 유통 규격화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의학이론의 양의학 접근 분야 중에서는 병리관련 연구부분이, 養生 관련 연구에서는 식양 및 식료에 관한 연구부분이 관심이 높았다.
3. 임상영역별 연구 세부분야에서, 내과에서는 소화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 간담계질환 등에 관심이 높았으며, 부인과에서는 임신관련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소아과에서는 허약, 발육부진의 개선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높았으며, 신경정신과 분야에서는 신경증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높았다. 침구과 및 물리요법과에서는 요통 및 요각통, 관절관련 질환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이비인후과 분야에서는 鼻疾患

중심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피부·외과에서는 피부과 관련질환(특히 알러지성 피부염) 등에 관심이 높았다. 사상외과에서는 체질감별이나 診斷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높았다.

4. 치료방법별 연구분야는, 약물요법 중에서는 후세방 연구에 관심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질방 연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침요법 중에서는 약침요법의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요법에서는 추나요법과 기공요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5. 진단분야의 연구를 희망하는 분야는, 현대기기를 이용한 진단분야에서는 초음파진단기 활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방원리를 이용한 기기 진단에서는 脈診器 활용을 통한 진단의 객관화에 관심이 높았다.
6. 앞으로 임상영역의 연구방안으로는 전문클리닉 중심으로 전문질환별 연구를 희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학계와 임상계와의 공동연구기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한의학의 연구방향 모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편 : 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1996, pp.16-20, p.26.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편 : 기초의학분야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서울, 과학기술처, 1989, pp.1-2, 11-13.
3. 대한한의학협회 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韓醫), 서울, 통계청, 1994.